

행동하는 믿음 VII

사람의 오감을 넘어선 믿음의 본질

1. 도마의 의심

[요한복음 20:26-29]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27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28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29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과 도마가 집중되어 있다. 도마를 통해 예수님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다.

* **26절** -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육체를 벗어난 부활의 몸이 되었다. 즉, 이 땅의 어떤 시,공간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증거가 제자들이 문이 잠긴 집에 모여있었는데, 예수님이 잠긴 문을 통과해 오셨다는 것이다.

* **27절** -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라면 창 자국과 못 자국의 흔적이 있기 때문) 그리고 '의심'을 떨쳐 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도마를 통해 '의심'과 '믿음'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신다. 오늘 도마의 의심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도마의 '오감'에 있다. 자신의 시각, 후각, 촉각으로부터 오는 경험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치유하신다. 만져보게 하신다. "Stop doubting and believe." 영어로 보면 의심을 멈추라 말씀하신다. 의심을 멈추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다. 히브리서 11: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다. (고전 2장의 신령한 사람 vs 육에 속한 사람의 비교) 알 수도 없다.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14]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성령의 일을 말한다. '자연인(육)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믿지 않는 상태가 바로 도마의 '의심'이다. 육체의 본성은 사람의 오감을 넘어선 어떤 일도 믿지 않는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는 일을 육체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신령한 일이 무슨 일인가? 오감으로 알 수 없는 일은 고린도전서 2: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분'에 대한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에 대한 것이다. 이 일을 절대 사람의 오감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육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사탄이 죄를 통해 사람을 의심의 존재로 만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다.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없도록 한 '의심의 사슬'에 묶어둔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의심의 문제를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도마의 의심이 있다면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의심을 멈추어라. 그리고 믿어라'

2. 믿음의 본질 -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존재

(1) 영과 혼의 관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 이성에서 근거한 믿음이다. (혼의 영역에 근거한 믿음이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더 본질적인 사람의 본성을 알아야 한다. 원래 사람과 하나님은 믿음의 존재였다 (신뢰의 관계). 신뢰란 내가 경험하지 않고,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하나 된 존재였기 때문이다. 하나 된 관계에서 의심이란 있을 수 없다.

원래 의심은 언제 생기는가? 하나 된 관계가 깨어질 때이다. 다시 말하면 '신뢰'의 관계가 깨질 때이다. 사탄이 먼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기 위해 사용한 무기가 '의심'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놀랍다. '의심'의 영역은 영적 존재 사탄이 사용한 '영의 영역'이라는 사실이다. 영은 혼과 육 위에 있는 차원이다. 영이 혼을 다스린다(지,정,의). 영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을 말한다. 사탄은 이 하나됨을 깨기 위해 '혼'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아담의 생각과 감정을 사용했다.

생각과 감정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무서운 생각을 하면 두려운 감정이 생기게 된다. 좋은 생각을 하면 기쁨의 감정이 생겨난다.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면 사랑의 감정이 생겨난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감정을 갖게 한다. 사탄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힘을 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사탄은 지금도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공격한다.

(2) 신앙의 상태 - 민감함 vs 둔감함

오늘 나의 신앙의 상태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영적인 상태를 말한다. 바로 '혼'의 영역을 보고 알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혼'의 영역에 시그널이 뜨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해도 감동이 없다. 무뎠어진다. 영적인 영역의 무뎠음이 바로 혼의 영역에 여러 시그널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혼'(생각과 감정)의 영역을 훈련해야 한다.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단련시켜야 한다. 혼의 영역이 단련될 때 주어지는 능력이 '민감함'이다. '민감함'은 '분별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라. 그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한 상태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린 사무엘은 듣는데, 제사장 엘리는 듣지 못한다.

신앙이 약해진 사람의 특징은 '둔감함', '무뎠음'이다. 그것은 '감동이 없는 마음'이다. '기대'가 없는 마음이다. 예배를 드려도 기대감이 없다. 감동이 없다. 이것은 신앙의 불이 이미 꺼져가고 있는 상태이다. 단순히 무뎠진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 온 상태라는 것이다.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과 의심을 통해, 그 사람의 삶에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불을 지속적으로 끄고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로 알아야 한다.

(3) 변화 - 회개 (돌이킴)

사탄은 죄의 유입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목표이다. 지속적으로 혼의 영역을 오염시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욕의 '욕망과 정욕'에 반응하게 한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욕망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모든 오감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분명하다. '회개'이다. 돌이키는 것이다.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는 가장 확실한 변화이다. 회개는 '오감'의 변화를 말한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의 변화를 말한다. 회개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이미 회복된 나를 보는 것이다.

3. 오감을 넘어선 믿음의 본질

[요한복음 20:29]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도마 사건을 통해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신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감을 넘어선 믿음을 말씀하신다. 믿음은 마음의 결정이다. 그래서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인 것이다. 의심이 있어도 마음으로 결정하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신다. 도마를 만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한 승리의 예수님이다. 도마의 의심에 확신을 주는 것이다. '도마야, 나는 승리했다. 너의 모든 의심을 치유했다. 지금은 네가 만져보아 알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다. 네 마음에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다' 그 사람이 중풍병자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있는 믿음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마가복음 11:22-24] 2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완료형이다. 24절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다. 오감을 넘어선 믿음의 훈련은 '행동'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지붕을 뚫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다. 뚫는 순간 이미 고침을 받았다. 상황과 환경에 놀리지 마라. 진짜 문제는 바라는 것(꿈)이 없다는 것이다. 꿈이 있어야 한다. 믿음은 우리에게 꿈을 준다. 어려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가면 치료될 것이라는 꿈이 있는 것이다. 그 꿈이, 그 바램이 믿음이 되는 것이다. 이제 날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한 믿음의 감각을 단련시키자.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감각을 단련시켜, 오감을 넘어선 믿음을 갖자. 그 사람을 통해 지붕을 뚫는 것 같은 새로운 길들이 생겨날 것이다.

- (1) 아멘으로 응답하는 신앙
- (2) 염려가 아닌 감사, 기도와 간구로 생각을 지키라.

[빌립보서 4:6-7]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